

셀트리온, 제3공장 최종점검... “연말 상업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특화시설 구축 3공장, 올해 12월 상업생산 예정 1·2공장포함 25만 / 생산 확보



셀트리온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 조감도.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자사가 개발한 ‘집펜트라’를 ‘신약’으로 출시한 가운데, 제3공장 연내 가동으로 ‘전략적 생산기지’ 마련에 속도를 낸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제3공장이 상업생산 가동 전 최종 밸리데이션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밸리데이션이란 의약품 상업 생산 이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로, 의약품 제조공정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체 과정에서 제품이 미리 설정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 문서화하는 작업이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7개월간 약 2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인천 송도에 제3공장을 신규 준공했다. 본격적인 상업 생산은 오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제3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6만리터로, 기존 10만리터 규모의 제1공장과 9만리터 규모의 제2공장까지 합쳐 셀트리온은 총 25만리

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제3공장에는 7500리터 배양기 총 8개가 배치됐는데, 다양한 품목을 경제성 있게 소량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특화된 시설이다.

셀트리온은 제3공장에 세포 증식 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는 신규 배양 공정 설비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정제 공정에는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 최신 기술을 집약시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셀트리온은 제3공장의 실제 생산량이나 매출 기여도는 기존 생산시설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제3공장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셀트리온의 최근 성과 또한 뒷받침되고 있다.

셀트리온이 지난 3월부터 미국에서 출시한 ‘집펜트라’는 본격적인 매출 확대 단계에 진입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에서 익스프레스스크립츠와 같은 대형사를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처방 약급여관리업체들과 처방집 등재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 중이다.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이들 계약의 보험 환급이 지난 6월부터 본격 이뤄져 실질적인 처방집 등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집펜트라 미국 매출액이 오는 2024년

2880억원, 2025년 1조937억원, 2026년 2조763억원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집펜트라라는 신약으로 출시된 만큼, 바이오시밀러 대비 3~4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셀트리온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집펜트라 후속으로 오는 2025년까지 11개, 2030년까지 총 22개의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최근 줄레이 바이오시밀러 ‘움리클로’, 스탠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텐젤트’ 등 고역가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잇따라 획득했는데, 셀트리온은 해당 품목들의 본격적인 상업화에 있어서 유연한 생산이 가능한 제3공장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신규 허가를 진행 중인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증설한 제3공장이 마지막 점검 단계에 들어섰다”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매년 증대되는 만큼, 전략적 성장 계획과 선제적 시장 대응을 통해 성장세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뉴오리진 키크릿젤리. /유한건강생활

유한건강생활 뉴오리진 “어린이 성장 도와요”

유한건강생활이 어린이용 건강제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유한건강생활은 ‘뉴오리진 키크릿젤리’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한건강생활에 따르면 ‘뉴오리진 키크릿젤리’는 ‘유산균발효글루추출물’을 주 원료로 함유하고 있다. 또 유한건강생활이 8년 연구 끝에 개발한 ‘녹용효소분해추출물’과 국내 최초·유일 편안한 소화를 위해 특허 받은 ‘A2 단백질’을 소량 포함한다.

이와 함께 뉴오리진 키크릿젤리는 까무까무(비타민C), 구아바(아연), 우유(칼슘) 등 원물 그대로의 영양소를 살린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내달 새 정산 시스템 도입... 안전성 강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논란 이미 구매한 상품 판매중단 등 배송일정 변경에 소비자 불안 ↑



티몬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쿠팡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는 곧바로 “안전하고 빠른 신규 정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상품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고객은 구매한 상품의 배송 일정이 ‘8월 예정’으로 안내되거나 ‘상품판매 중단’ ‘이미 구매한 상품 취

소’ 등으로 안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티몬, 위메프에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의 상품을 제외한 상품 구매는 가능한 상태다.

티몬의 선불충전금인 ‘티몬캐시’ 판

매 페이지에는 ‘미사용 티켓 환불제 미적용 상품’이라는 환불규정이 명시돼 있는데도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매취소 공지를 안내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수 올라왔다. ‘환불 요청 중이 하루가 넘었는데 답변이 없다’, ‘망한 거 아니냐’, ‘불안하다. 휴가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등의 내용이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 측은 23일 즉각 입장문을 밝혔다. 판매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대금 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산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제3의 금융 기관과 연계해 자금을 안전하게 거치하고, 빠른 정산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일시적인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며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 이탈과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8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결제하면 각 회사에 대금이 보관돼 있다가 판매자별 정산 일자에 맞춰 지급되는 형태였다면, 새로운 시스템은 안전한 제3의 금융 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하고(에스크로 방식), 고객들의 구매 확정 이후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티몬과 위메프는 상품 판매에 대한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받는다.

즉, 전체 결제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지급 일자 또한 크게 앞당겨 빠르면 주간 단위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8월 중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판매자들에 공개하고, 이용방법과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데상트골프

‘큐롯 컬렉션’ 화보 공개

골프웨어 브랜드 ‘데상트골프’가 여성용 골프 의류 제품군을 강화하고, 모델 착용 화보를 공개했다.

데상트코리아는 데상트골프 브랜드가 여성용 ‘큐롯 컬렉션’ 출시를 기념해 모델 김진경과 함께 한 화보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데상트골프에 따르면 데상트골프 ‘큐롯 컬렉션’은 복잡한 장식을 절제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주름 굽기와 위치 등을 다채롭게 변형한 입체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드 플리즈 포인트 스커트’는 양 측면 사선 절개 패턴 사이의 주름 모양으로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것이 데상트골프 측의 설명이다. 색상 핑크와 검정 두 가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한섬 ‘시스템’, 파리 라파예트百 입성

내년 1월 말까지 팝업 스토어 진행

패션 기업 ‘한섬’이 프랑스파리에서 팝업 스토어를 개최한다

현대백화점그룹 한섬은 프랑스 파리의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 오스만 본점(이하 라파예트)에 국내 여성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라파예트의 입점 제안을 통해 진행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내년 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팝업 스토어는 라파예트 오스만 본점 여성관 2층에서 지난 17일부터 진행됐다.

‘시스템’만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철학을 담은 제품부터 미니멀한 감성의 일상복까지 총 200여 종의 제품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는 것이 현대백화점그룹 측의 설명이다.

한섬은 이번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유통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섬이 라파예트와 함께 프랑스 3대 백화점으로 꼽히는 프랭탕, 봉마르세를 비롯해, K-패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권 주요 백화점에서도 단독 매장 개점을 제외받아 협의 중에 있다는 게 현대백화점그룹 측의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이대목동병원, 보건의료표준 선도병원 선정

의료 이용·기관, 편의·효율성 확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사업에 동참해 환자들의 의료이용 편의성과 의료기관의 효율성 확보에 앞장선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표준 현장실증 및 확산을 위한 표준선도기관 지원사업’에 이대목동병원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 교류 시 진단명, 주증상, 검사 결과, 치료약제 등 표준화된 정보 형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선도 병원을 지정하고, 오는 2024년 12월까지

의료 현장에서 표준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선도병원 사업의 공동기관으로, 주관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과 또 다른 협력기관인 비트컴퓨터와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이대목동병원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대응 경험을 적극 활용해 표준 관리를 위한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검증을 추진한다. 표준 고시 적용 및 데이터 교류 실증 테스트를 실시해 중별 적용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료데이터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청하 기자

제일파프 40주년

‘펍권’ 캐릭터 신규 광고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제일파프’ 40주년을 맞아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40년 전통의 ‘펍권’ 캐릭터와 함께 제일파프 신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신규 광고는 제일파프 브랜드를 상징하는 ‘펍권’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광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특히 ‘바쁘다 바빠’, ‘내가 제일파프지’ 등 추억의 광고 문구도 다시 등장시켜 소비자 친근감을 높였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지난 1월에는 1980년대 제품 디자인을 활용한 제일파프 레트로 패키지도 선보였다.

/이청하 기자